

Haegue Yang
Three Kinds in Transition
전환하는 삼인자
2008

30-inch Apple Cinema Display, 235 images, loop

30인치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 영상
(도판 235장), 무한반복

68.8 x 54.3 cm

Edition 8 / II A.P.

[Watch an excerpt here](#)



Barbara Wien
gallery & art bookshop
Schöneberger Ufer 65, 3rd floor
10785 Berlin
Germany

fon +49-30-28385352 fax -50
mob +49-173-6156996
bw@barbarawien.de
www.barbarawien.de

Three Kinds in Transition operates as a lost puzzle embodying an abstract idea about intrinsic movement. Images of similar shape and proportion – globes, basketballs, soccer balls and polyhedral origami objects – dissolve and morph into one another. The transitions between the spherical forms underscored a search for constancy and movement, transformation and evolution, specificity and universality.

〈전환하는 삼인자〉는 정치, 지리, 생태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각종 지구본과 구형에 가까운 형태에서 뾰족한 별 형태의 다각형 종이접기 오브제, 그리고 구형을 띤 각종 오브제 등이 점차 전이하는 전환과정을 보여주는 영상 작업으로, 약 235개의 이미지가 3-4초 간격으로 페이드인-아웃 되면서 그 형태의 유사함과 상이함을 드러낸다. 지구본은 인류의 삶의 공간인 지구의 윤곽을 담고, 구체적인 그러나 극도로 추상적인 행성의 모델로서 어느덧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는 오브제로 전환된다. 이어 수작업으로 만들어졌으며 기하학적 요소를 내포한 구체 모양의 색종이 접기 오브제로 변신하는가 하면, 이윽고 다각형을 거쳐 점차 각이 첨예한 별 모양에 이른다.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PDP를 세로로 돌린 모니터 상에 전시된 〈전환하는 삼인자〉 (2008)는 스크린에 비쳐 가끔 내부에 조명이 켜지는 다채로운 플라스틱 지구본의 이미지들과, 다양한 색깔의 기하학적 다면체 조형물로된 색종이 접기 이미지들을 연속적인 형태로 전개한다.

세계와 세계 관계에 대한 양혜규의 재상상 또는 재형상화는 이동성, 벡터 vector, 접기의 감각 논리로 창조된다. 양혜규의 작업은 평면의 색종이를 시간과 공간과 함께 접어 넣음으로써 또 다른 추상적 실제의 모델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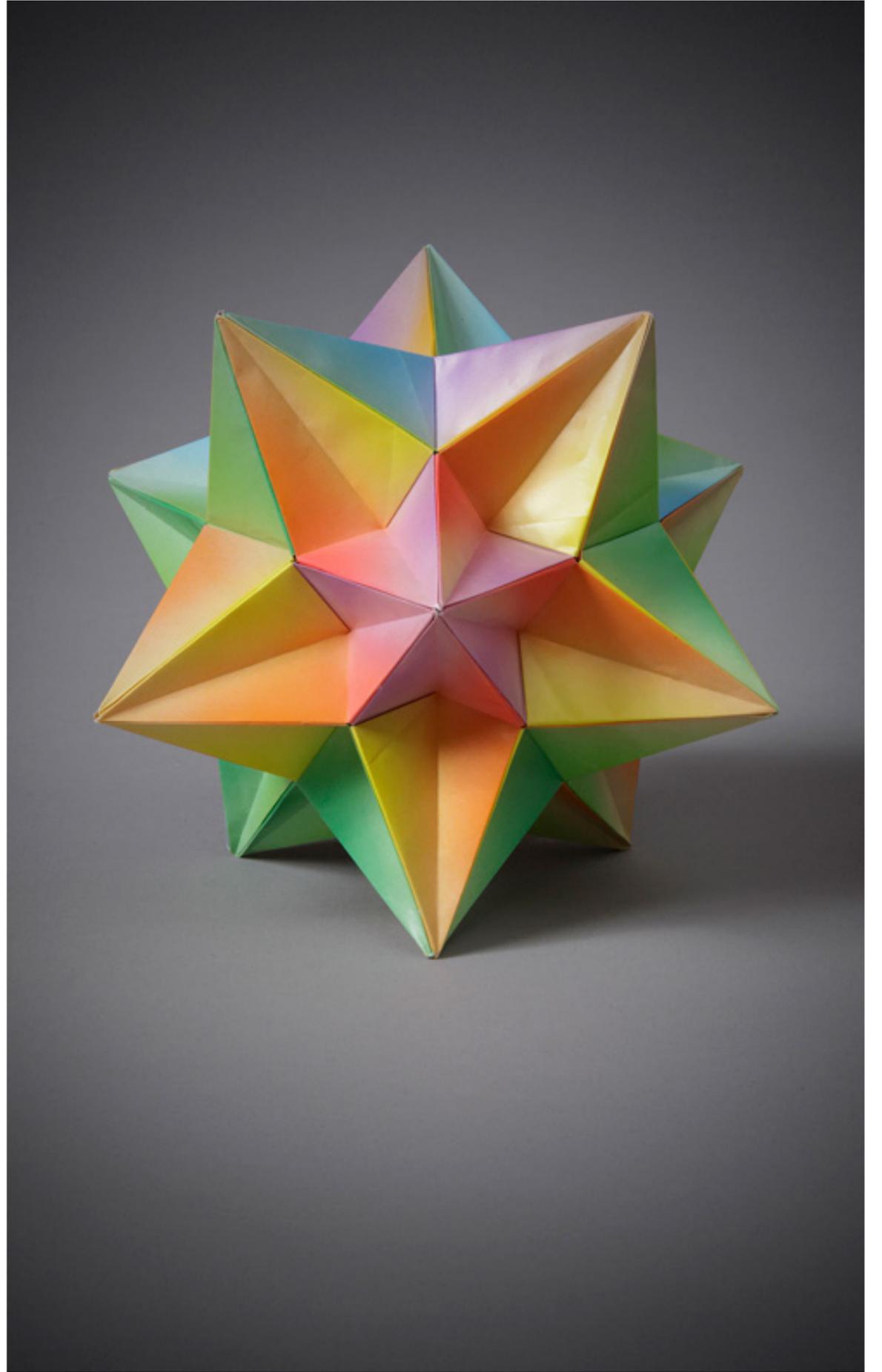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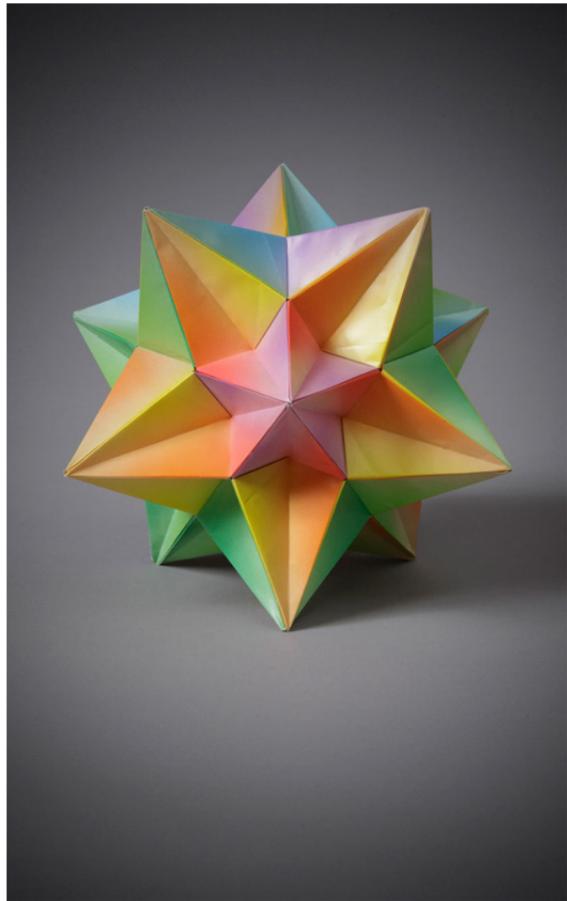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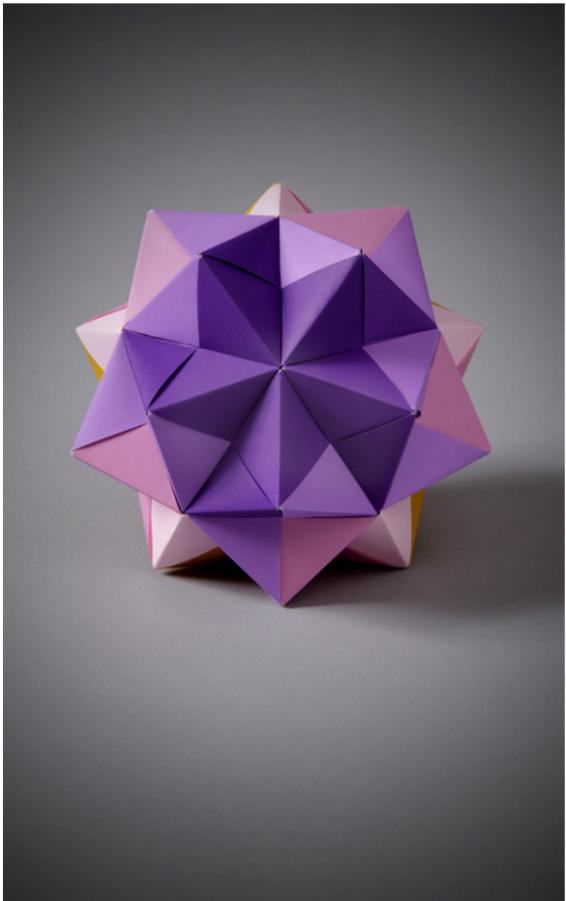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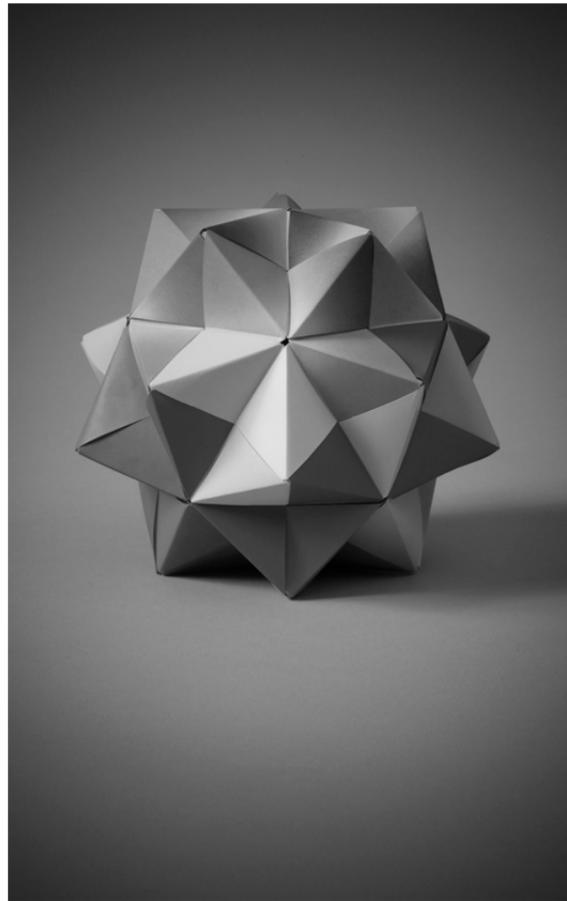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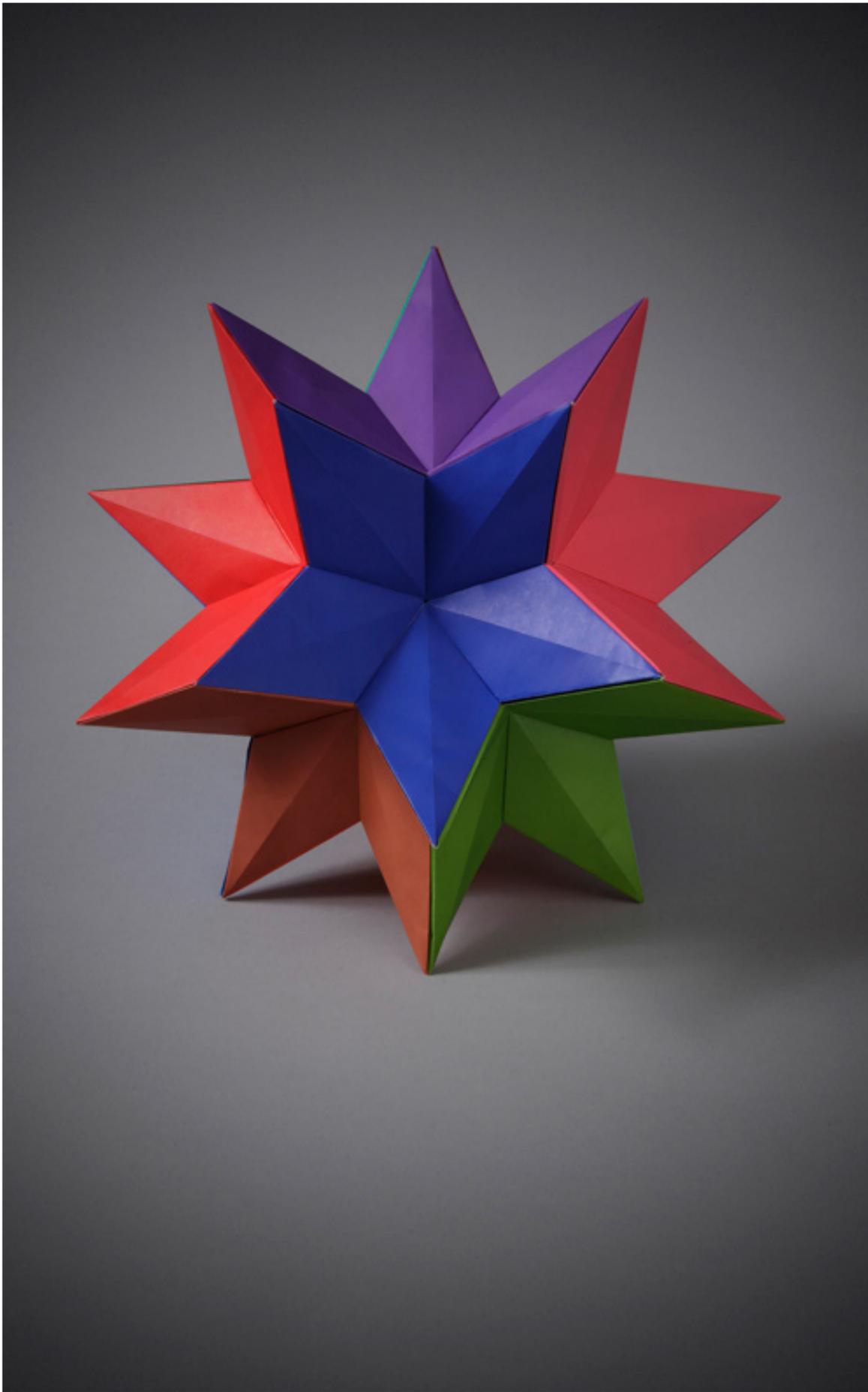
Film stills



Film sti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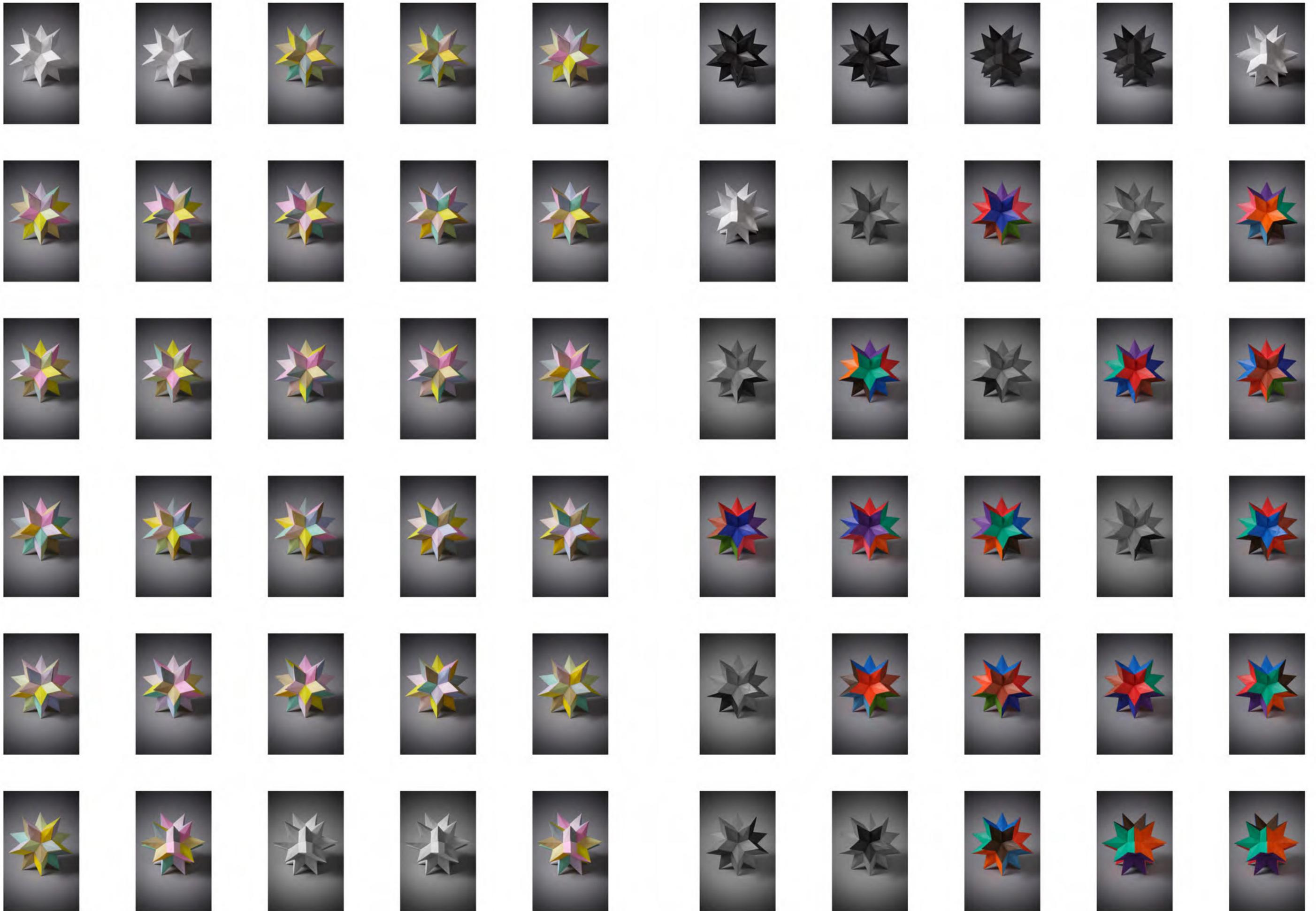
Film stills



Installation Haegue Yang, *ETA 1994-2018*, Museum Ludwig, Cologne, Germany, 2018



Installation *Life On Mars*, 55th Carnegie International, Carnegie Museum of Art, Pittsburgh, US,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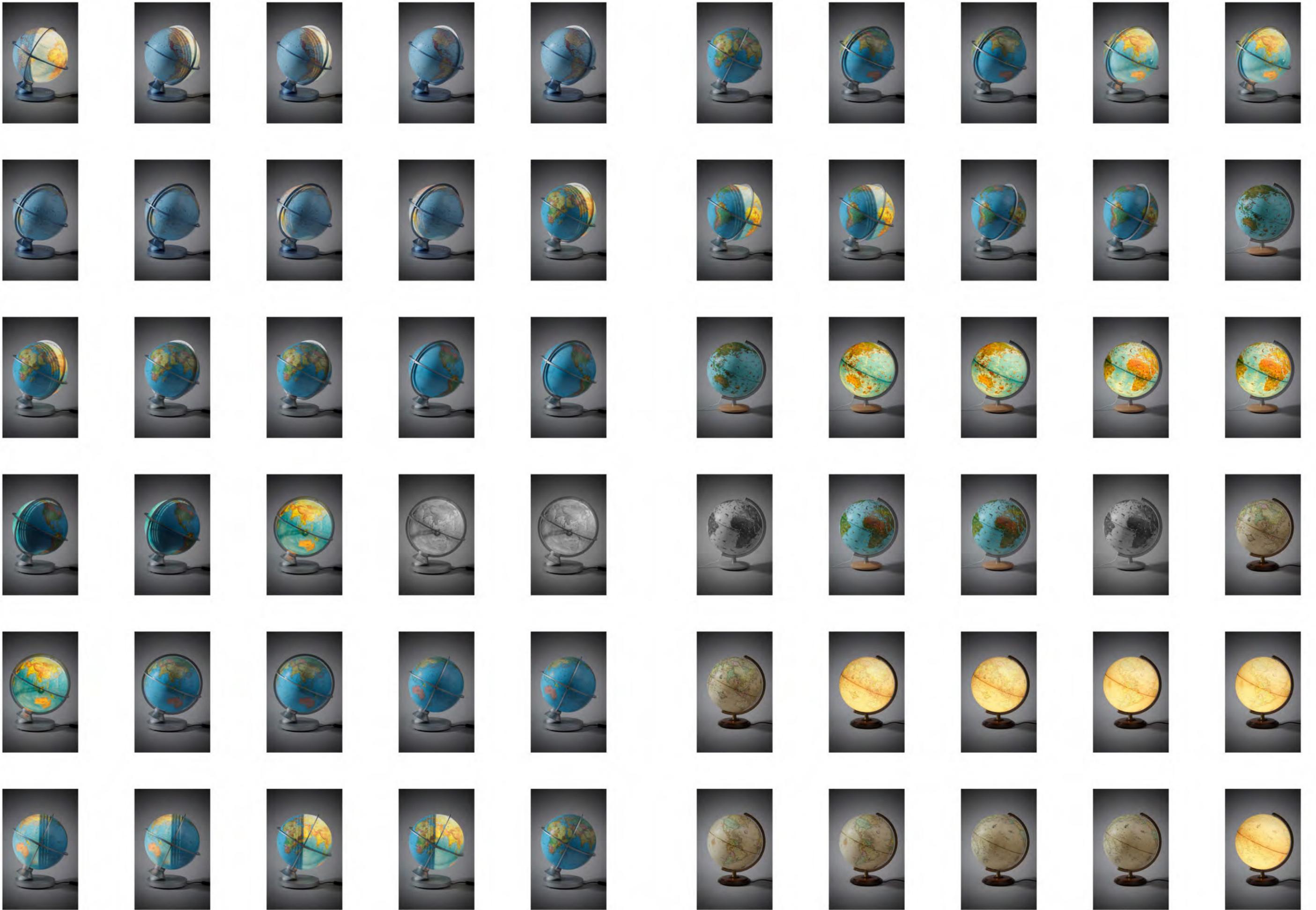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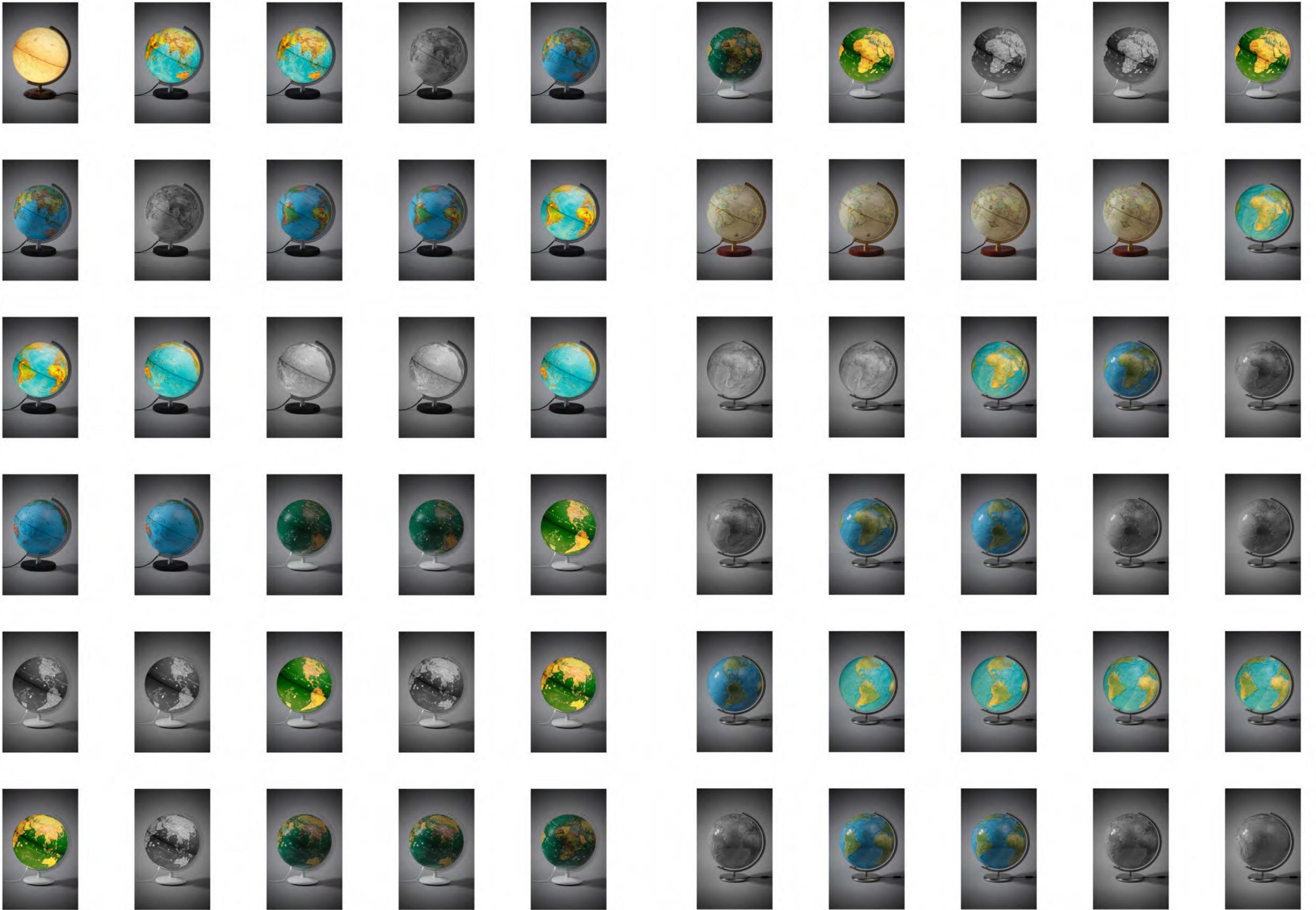
Film sequ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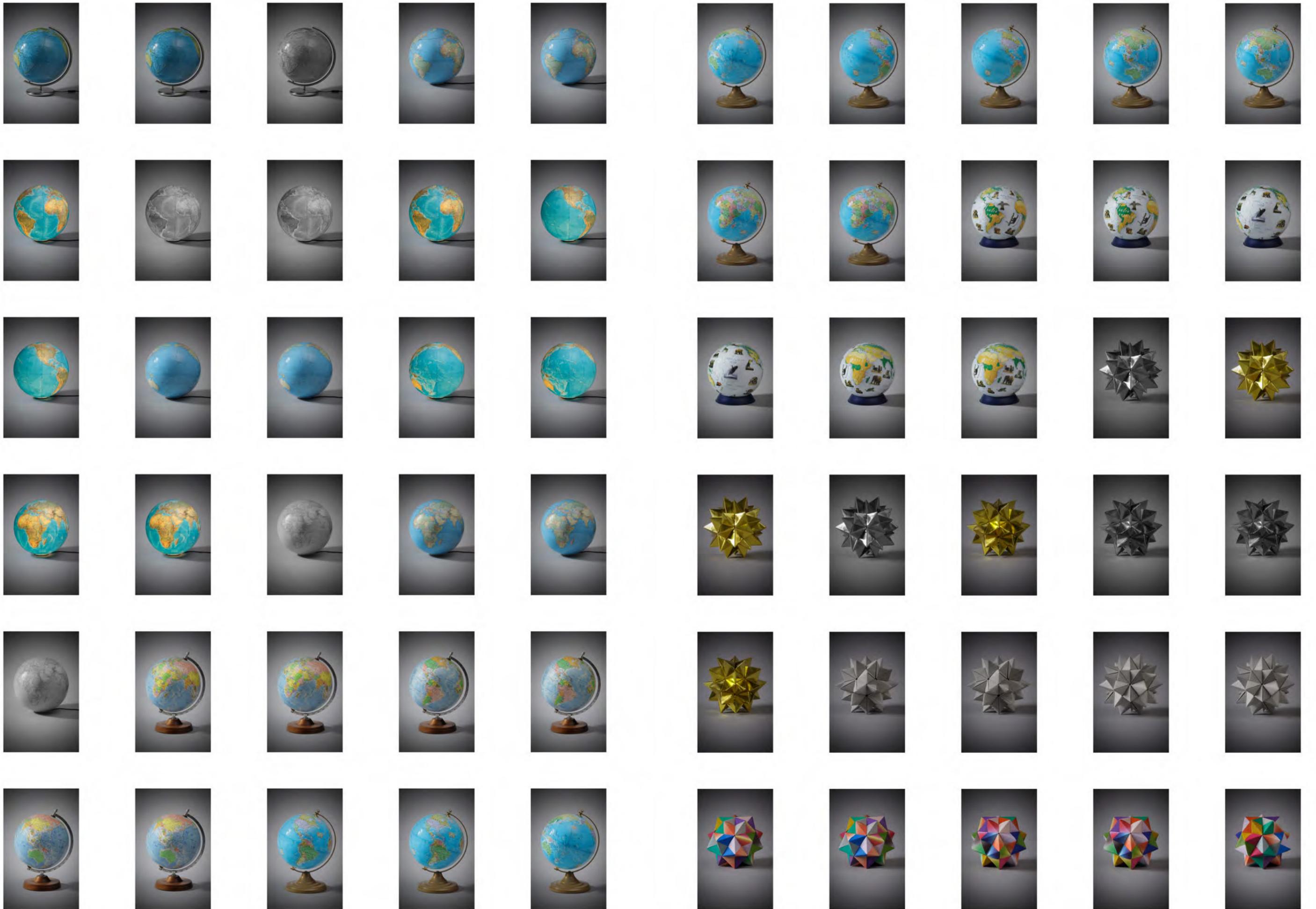














Photos by Gunter Lepkowski